

두 가지 생각

인간의 두뇌는 어떤 면에서 컴퓨터 같습니다. 생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합니다. 정보와 아이디어는 두 개의 근원으로부터 인간의 혼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영이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영으로부터 오든지, 아니면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들 가운데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묵상할 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롬 8:5**).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 우리의 양심으로 들어옵니다 (**롬 8:16; 9:1**).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적인 영향들을 통해 귀신적 근원들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지속적으로 생명의 생각을 선택합시다 (**신 30:19**). 그리고 교만과 정욕, 정죄와 근심의 생각들은 무시합시다 (**고후 10:3-5**).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예슈아의 생각들과 일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욘 키푸르 컨퍼런스

욘 키푸르 기념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적인 돌파의 시간이었습니다.

- 예루살렘 지역 여러 공동체들과의 연합이 있었고
- 모든 모임과 강의는 히브리어로 진행되었으며
- 기쁨 부으심이 있는 찬양과 기도가 있었고
- 성령의 예언적 은사가 풀어졌고
- 히브리서 전체를 다 함께 읽는 시간이 있었고
- 전통 유대 절기의 요소들도 참가했습니다.

저희는 예슈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승리를 선포하는 강력한 쇼파르 소리와 함께 행사를 끝마쳤습니다 (레 25:9-10; 사 27:13; 마 24:31; 고전 15:52; 살전 4:16).

네타냐후의 UN 연설

다음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번 주에 **UN** 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례 없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국제 외교 사회 앞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전투적인 이슬람의 폐약에 대해서 연설하였습니다. 그는 시온주의가 성경에 근거했을 뿐 역사적인 뿌리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3 천년 전, 다윗 왕은 저희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에서 유대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유대 국가 이스라엘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뿌리도 없으며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본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는 옴 키푸르였습니다. 3 천년이 넘도록 우리는 이 자성과 속죄의 날에 함께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옴 키푸르의 끝에 우리는 축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활, 그리고 옛적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마카비와 같이 우리 민족을 지켜 온 젊은이들의 영웅적 행동들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투적인 이슬람의 악함을 비난했습니다.

『극단적 이슬람 세력들...은 세계 정복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럽, 그리고 미국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현대 세계의 종말을 원합니다... 그들의 불관용은 먼저는 그들의 동료 무슬림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누구든 가차 없는 그들의 신조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 광신주의가 패배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굴복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인명의 손실이 있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이란의 아야톨라들에게 있어, 상호 파멸에 대한 확신(핵 공격시 적의 핵미사일 도착 전에 격멸하는 핵보복 전략)은 걸림돌이 아니라, 동기가 됩니다... 아야톨라 라프산자니(Ayatollah Rafsanjani)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핵폭탄을 하나만 사용해도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에는 그저 부분적인 피해일 것이다."』

네타냐후는 성경적인 가치에 호소하며 연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유대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 곧 모두를 존엄과 긍휼로 대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분투하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우리 민족의 가치이며 인류를 향한 유대 민족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국제 사회가 전투적 이슬람의 위험에 대해 각성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가 계속해서 성경 도덕의 가치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네바 더 콜

-베드로스 네싸니안(Bedros Nessianian)

이번 12 월에 열리는 '더 콜 제네바'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며칠간에 걸쳐 열리는 이 전략적 행사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 년 12 월 8 일 기도과 금식, 그리고 회개의 날

2012 년 12 월 10-11 일 이틀간의 회복 학교

2012 년 12 월 12 일 12 시간의 예배 축제

제네바 게이트웨이즈 비욘드(Gateways Beyond Geneva)가 지역교회들 및 국제 더 콜 성회 리더 루 잉글(Lou Engle)과 스테이시 캠벨(Stacey

Campbell)과 함께 주최하는 이 행사의 비전은 이 도시의 영적 분위기에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2012년 12월 8일에 시작하는데, 이날은 유대교의 빛의 축제인 하누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16세기 제네바에서 올려 퍼진 개혁의 모토-어둠 뒤에 임하는 빛(**Post Tenebras Lux**)-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행사는 축하 예배와 함께 2012년 12월 12일(12-12-12)에 막을 내립니다. 12라는 숫자는 통치의 완성과 거룩한 권위를 뜻합니다. 제네바는 통치의 도시이며, UN의 본부입니다.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스위스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의 리더들과 중보자들이 제네바에 와서 이 국제적인 도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12-12-12에 관한 아세르의 기도 중:

첫 12는 이 세상의 정부와 사회에 임하게 될 하나님 왕국의 영향입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는 메시아의 몸이 연합하여,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사역으로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로마서 11장,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신 온 세계 교회의 충만함입니다.

세 번째 12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것이며 (**행 1:6**) 믿음의 유대적 뿌리가 회복되고, 메시아의 몸이 예슈아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콜 국제 컨퍼런스

장막절(수콜)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온 세계에서 믿는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는 때입니다(슥 14:16).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본토인들을 위한 컨퍼런스, 한국인을 위한 컨퍼런스,

그리고 태국인들을 위한 컨퍼런스 등을 포함한 여러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사역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